

〈IT국제표준화전문가 활동 성과〉

구분	'02	'03	'04	'05	'06	'07	'08. 6
전문가 수(명)	152	188	228	274	272	284	306
의장단 진출/(의석수)	29명	42명	74명/ (97개)	92명/ (131개)	103명/ (141개)	109명/ (145개)	106명/ (148개)
회의참가 회수(회)	224	228	211	255	343	313	136
기고서 제출(건)	116	140	270	376	445	365	187

4절 표준화 전략 및 계획 수립

1. 표준계획 수립

표준전쟁의 시대인 2000년대를 맞이하며 TTA는 표준화 사업의 체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표준계획 수립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TTA의 표준화 전략 및 계획 수립은 2001년에 시작한 '주요 선진국 및 국제표준화기구의 대응전략 수립'을 통해 처음 시도되었으며, 이듬해인 2002년부터 수행한 '정보통신 표준화 추진체계 분석'과 2003년부터 시작된 '정보통신 표준화 법체계 연구', 그리고 2006년부터 시행된 '정보통신 표준화 성과분석 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특히 한미 FTA 및 WTO 협상 등 국제기구 및 국가와의 실무 협상을 통해 선진국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정보통신 표준화 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 표준화 추진체계 분석

'정보통신 표준화 추진체계 분석'은 주요 공식표준화기구 및 국가표준화 추진체계

및 전략 분석을 통한 국내 정보통신 표준화 추진체계의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 주요 공식표준화기구(ITU-T TSAG, ITU-T WTSA, APT MC, ASTAP 등) 전략·정책회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수립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ITU, ISO/IEC JTC1, ETSI, ASTAP, ANSI, ATIS, TIA, TTC, ARIB, CCSA 등의 표준화 기구 및 미국, EU, 일본, 중국 등 국가별 추진체계 분석과, 주요 표준화기구의 기술회의가 아닌 전략·정책회의 참여, 관련 그룹 의장단 활동을 통한 전략적 대응,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지원 등이 있다.

먼저, 2002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표준화 기구 및 국가의 추진체계 분석에서는 각 표준화기구별 조직, 전략, 연구과제 및 국가별 제도, 추진체계 등을 조사·분석하였으며, 대상 기구 및 국가는 다음의 표와 같다.

뿐만 아니라, 분석 결과는 매년 '정보통신표준화 추진체계 분석서'로 발간하여, 산학연 전문가들과 정책입안자 등에게 배포함으로써 표준화 전략 수립과 활동에 필요한 가이드로 활용되도록 하였다. 또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표준화 핸드북'을 발간하여 정보통신 표준화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고 표준화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과 일본의 정보통신 표준화 동향을 분석하고 이슈 발굴을 통해 정보통신부(현 방송통신위원회)내 동향분석협의회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다.

주요 표준화 전략·정책회의의 대응 활동은 TSAG/ITU-T 및 ASTAP/ATP 회의 위주로 매년 5건 내외의 활발한 기고서 제출과 의장단 수임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특히 현재 활발하게 운영 중인 ITU-T TSAG 내 'Technology Watch' 기능의 신설을 주도하였고, ASTAP/APT에서는 ASTAP 06-08 전략계획, 국제전기통신규칙(ITR: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에 대한 한국 입장 정리, ASTAP 조직 및 작업 규정 변경 제안 등 국내 입장을 반영한 기고서 제출 활동을 펼쳤다. 또한, 의장단 활동으로는 2002년부터 ASTAP/APT의 전략계획이행그룹, 문서체계화태스크그룹의 2개 의장단(라포터, Rapporteur)을 수임하였고, ASTAP 내 ITU-T 활동과 연계하여, 2005년에는 ITU-T Issue Group 및 PP06 준비회의그룹(CG3), 그리고 2007년에는 WTSA08 준비작업그룹(CG1) 의장단을 수임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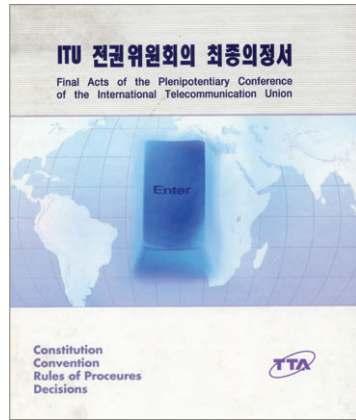
이러한 표준화기구 및 국가에 대한 추진체계 분석과 주요 전략회의 참여를 통해, 국내 표준화활동에 대한 시사점 도출과 국제표준화 추진체계 고도화 제안, 국가 정보통신표준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표준화기본계획(2006년), 제2차국가표준기본계획(2006년), 정보통신국제표준화전략(2007년) 등

〈표준화 추진체계 분석 대상 기구 및 국가〉

구분	기구/국가명	
표준화 기구	국제	ITU, ISO/IEC JTC1
	지역	ETSI, ASTAP
	미국	ANSI, ATIS, TIA
	일본	TTC, ARIB
	중국	CCSA
국가	-	미국, EU,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



• 정보통신표준화 추진체계 분석서 | 2002



• ITU 전권위원회 최종의정서

정부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국내외 현황자료 제공 등 매년 100여 건의 정책 지원 활동을 추진하였다.

〈연도별 주요 실적〉

- 2002년**
 - 정보통신표준화 추진체계 분석서 발간
 - 기고서 1건, 의장단 1석 수임
- 2003년**
 - 정보통신표준화 추진체계 분석서 발간
 - 기고서 4건, 의장단 2석 수임
 - 표준화 지수 측정 모델 개발 연구 수행(위탁)
- 2004년**
 - 정보통신표준화 추진체계 분석서 발간
 - 기고서 6건, 의장단 2석 수임
 - 정보통신표준화의 거시적 경제효과 분석 연구 수행(위탁)
- 2005년**
 - 정보통신표준화 추진체계 분석서, ITU-T 규정집(한영대역) 발간
 - 기고서 6건, 의장단 2석 수임
 - 미안마 정보통신개발 프로젝트 표준화분과 마스터/액션플랜 수립
- 2006년**
 - 정보통신표준화 추진체계 분석서, 정보통신표준화 핸드북 발간
 - 기고서 9건, 의장단 2석 수임
 - 정보통신표준화기본계획, 제2차국가표준기본계획 등 정책지원
- 2007년**
 - 정보통신표준화 핸드북(국가별전략편), ITU 전권위원회 최종의정서(한영대역)발간
 - 기고서 11건, 의장단 2석 수임
 - 정보통신국제표준화전략 등 정책지원
- 기타**
 - 정보통신표준화 동향분석 및 정보통신부(현 방통위) 동향분석협의회 자료 제공(2004년~2007년)

이밖에도, ITU-T 규정집(한영대역), ITU 전권위원회 최종의정서(한영대역)를 발간하여 국내 ITU 참여전문가들의 활동을 돕고 있으며, 국제협력 차원으로 미안마 정보통신개발 프로젝트의 표준화분과 마스터·액션플랜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기타로는 정보통신 표준화 지수의 정량적 접근을 시도하기 위한 표준화 지수 측정 모델 개발 연구와, 표준화 실적의 정량화를 위한 정보통신표준화의 거시적 경제효과 분석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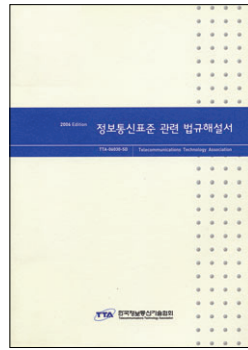
정보통신표준화 법제도 연구
정보통신표준화 법제도 연구 과제는 200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급변하는 정보통신 표준화 추진을 위한 국내외 제도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관련정책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정보통신표준화 제도 개선에 이바지하였다.

구체적으로 주요 표준화기구의 규정과 국제기구 및 EU·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국가의 표준화 관련 법규를 분석하고, 해외의 국내 정보통신표준화 환경에 대한 통상마찰 제기를 해소하였으며, 국내 무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표준 관련 통상정책 수립과 협상을 지원하였다. 또한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시 다양한 국내 표준화 추진체계 및 적합성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 제시를 위해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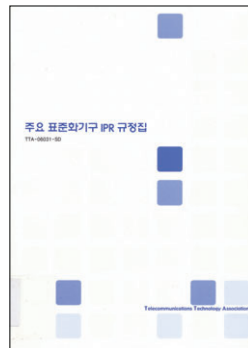
〈연도별 주요 실적〉

- 2003**
 - 정보통신표준화추진에 관한 규칙(안) 작성 등 정책지원
- 2004**
 - 정보통신국가표준(KICS) 개선계획(안) 수립 등 정책지원
- 2005**
 - WTO DDA, 한미FTA, APEC 제안서 등 표준화 관련 통상쟁점 대응을 위한 'IT 표준분야 통상협상 대응 가이드라인' 개발
 -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안) 수립 지원 등 정책지원
- 2006**
 -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정보통신표준화 관련 법규해설서, 주요 표준화기구의 IPR 규정집 발간
 - 한미 FTA IT표준분야 협상 대응·지원 등 정책지원
- 2007**
 - 2007년도 정보통신부 국가표준시행계획안 작성
 - 전파법시행규칙,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의 표준화 관련 규정 개정
 - WTO DDA, 한미FTA 후속조치 등 표준 관련 통상쟁점 대응 등 정책지원
- 2008**
 - 2008년도 방송통신위원회 국가표준시행계획안 작성
 -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개선에 따른 전파법 개정안 작성 등 정책지원

주요 성과로는 2001년부터 논의된 국내 정보통신표준화 관련 법체계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표준화추진에 관한 규칙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2005년부터는 크게 쟁점화된 한미 간 FTA 협상 중 기술선택 관련 쟁점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성공적인 한미 FTA 통신협정을 도출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나아가 표준화가 쟁점이 되는 다자·양자 간 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지원 역할까지 수행하였다. 국내



• 정보통신 표준 관련 법규 해설서 (2006년)



• 주요 표준화기구 IPR 규정집(2006년)

정보통신표준화 관련 법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2005년부터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및 국가표준·인증제도 혁신실무위원회 활동 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 표준 관련 법규 해설서 및 주요 표준화기구 IPR규정집(2006 edition)을 발간하여 유관 기관에 배포함으로써 국내외 표준화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2차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지원의 일환으로 국가연구개발과 표준의 연계전략안을 도출함으로써 효율적인 국가 R&D 성과 달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보통신표준화 성과분석 연구 및 동향분석

2006년부터 시작된 정보통신표준화 성과분석 연구는 우수 국제표준화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국내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국내표준화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 표준화사업의 성과지표 및 계량가능지표를 발굴하고, 전년도 정보통신 표준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대표적인 우수 국제표준화 성공사례인 와이브로와 DMB를 프로세스 전략 모형으로 삼았다. 이후 표준화 및 기술개발 이력문서를 개발하고, 국내·국제 표준화·기술개발·정책 및 산업측면의 유형별 분석과 문헌조사·전문가인터뷰 등을 통하여 핵심성공요인(Key Success Factor)을 도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핵심성공요인의 특성을 분석하여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체크리스트 설정 및 표준화 추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듬해인 2007년에는 와이브로와 DMB에 이어 Mobile RFID, WIPI, 번호이동성, 휴대폰충전기 등 대표적인 성공사례를 추가하여 유형별 핵심성공요인 및 핵심역량을 도출하였다.

또한 2006년도에 추진한 정보통신 표준화사업의 연구과제별·기술분야별·표준화분야별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DB를 구축하여 조사 분석 체계를 수립하였다. 이때 표준화기구별 표준화사업 성과분석은 IT839 10개 분야와 국제표준화기구 ITU를 포함한 12개 기구에 대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연도별 표준화 연구과제 연관성 조사 및 성과 추적을 실시하였다. 이 작업을 위해 표준화 수요조사 결과, 수행연구과제 간 사업기간, 주요내용, 예상 결과물 등의 비교분석을 통한 연관성 조사가 이루어졌다. 한편 성과의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한 분야별 전담 전문위원회제를 운영하고, TTA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과 표준화사업 성과분석 전문위원회 개최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갔다.

이 같은 정보통신표준화 성과분석을 통해 마련된 연구 결과는 정보통신표준화 추진을 위한 체크리스트 및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였으며, 정보통신표준화사업의 경제적 성과분석을 통한 기금 사업의 책임성, 효율성,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2006년부터 수행한 정보통신표준화 동향분석은 정보통신표준화 활용에 제한적인 국내 기술혁신형 기업들이 표준화 기획 단계부터 전략적인 활동을 통하여 자사의 미래 표준화 전략기술 및 아이템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중국의 정보통신국가표준 추진체계 및 IT839 분야의 최신 표준화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국의 정보통신 주요 뉴스 동향 140건, 중국의 정보통신표준 주요 뉴스 요약 및 논평 150건, 중국의 IPTV, LBS, RFID, 텔레매틱스, 홈네트워크, DMB, WiMAX 등 보고서 30여 건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또한 일본의 정보통신표준화와 관련된 산업 및 정부 정책 동향과 'U-Japan 전략', '2006년도 IT정책대강' 등을 분석하였다.

2. 정보통신 중점기술 표준화로드맵 수립의 변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이룩하며 전 세계 정보통신 벤치마크 모델 국가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단말기를 비롯하여 PDP, 초고속인터넷, 메모리(DRAM), 디지털 TV, 온라인 게임 등은 가히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정보통신산업은 급격한 외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취약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비정보통신산업보다는 지식·기술 집약적인 특성을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도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과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기술기여율이 낮은 상태이다. 또한 메모리, LCD, 휴대전화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의존율이 지나치게 높아 세계 경기변동에 민감하며,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으로 갈수록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이밖에도 제조업 부문이 정보통신 산업 생산의 72% 이상, 정보통신산업 수출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나친 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시장잠재력이 높은 소프트웨어와 비메모리, 컴퓨터 분야 등에서는 역량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정부는 이 같은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제표준이 세계시장 선점과

확산의 도구로 활용되는 현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03년 범국가적 차원의 표준화 추진전략인 정보통신 중점기술 표준화로드맵(Standardization Roadmap)을 수립하게 되었다.

정보통신 중점기술 표준화로드맵은 국내외 관련 시장, 기술, 표준화 현황 및 미래 전망, 국내외 환경분석(SWOT)을 통해 우리의 기술표준 역량을 최대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표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 중점기술을 선정하고, 중점기술별 중장기 표준개발 계획과 추진전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기술표준 기획이다.

특히, 2008년에는 IT-환경(u-Environment), IT-조선(e-Navigation) 등 산업 간 융합기술을 포함한 36대 중점기술을 선정하여 향후 국제표준으로 선도 가능한 고부가가치 표준화항목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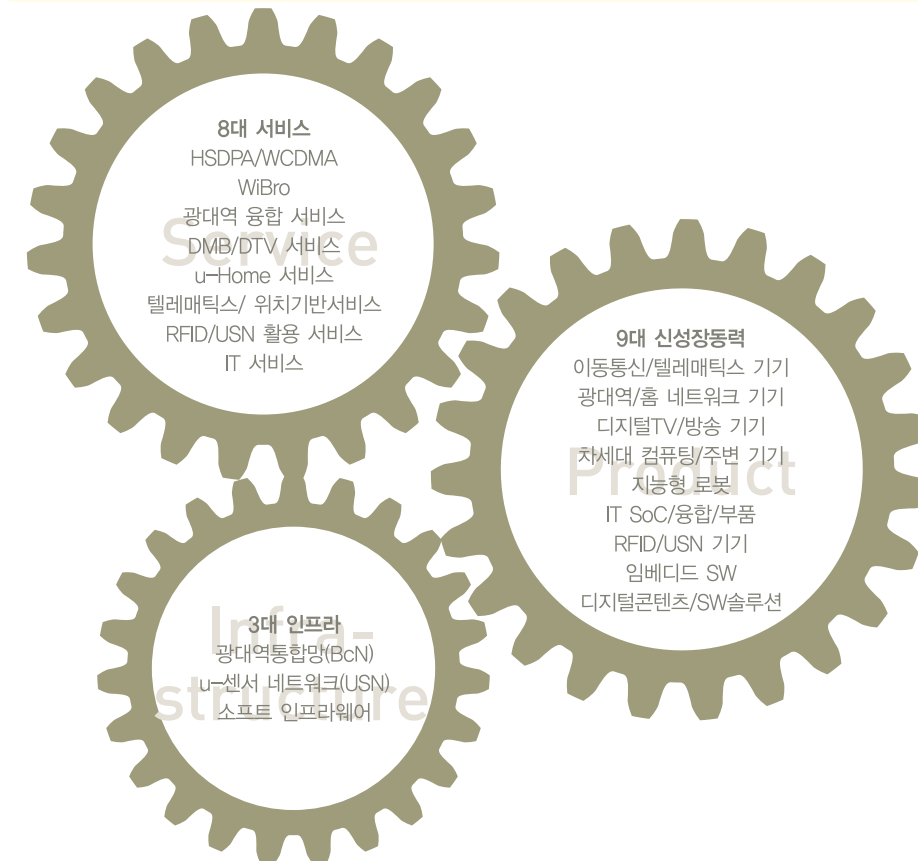
그동안 진행되어 온 표준화로드맵 추진과정은 크게 탄생기(2002년~2003년), 발전기(2004년~2006년), 성숙기(2007년 이후)의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단계별 세부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생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정보통신 표준개발 중기계획(2003-2005)(안) - 30대 중점기술 • 2003년 정보통신 중점기술 표준화로드맵(Ver.2004) - 30대 중점기술 ▶ 매트릭스 분석모형 → 중점기술별 거시적 관점의 표준화 추진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IT839 전략 표준화로드맵(Ver.2005) - 48대 중점기술 ▶ 표준상태전이 분석 모형 → 기술개발과 표준개발의 연계분석 • 2005년 IT839 전략 표준화로드맵(Ver.2006) - 37대 중점기술 ▶ 스타형 지수 분석모형 → 표준화 추진 전략 목표 및 세부 추진전략 수립 • 2006년 IT839 전략 표준화로드맵(Ver.2007) - 36대 중점기술 ▶ 중점 표준화항목 도출모형 → 중점 표준화항목 선정의 객관적 지표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숙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정보통신 중점기술 표준화로드맵(Ver.2008) - 35대 중점기술 ▶ 기술개발, 표준화, 특허 등 총괄분석을 통해 신규 표준화영역 도출 및 방향 제시 • 2008년 정보통신 중점기술 표준화로드맵(Ver.2009) - 36대 중점기술 ▶ 국제표준 선도 가능한 고부가가치 표준화 항목 발굴 및 표준화 전략 수립

IT839 전략과 중점기술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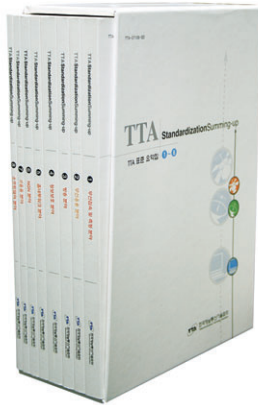
IT839 전략은 신규 수요창출 효과가 크고, 유무선 통신 및 방송 융합에 의해 높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8대 서비스와 이를 뒷받침하는 3대 첨단 인프라, 산업경쟁력과 고성장이 예상되는 9대 신성장동력으로 구성되었다.

정보통신산업의 가치사슬 개념에서 출발한 IT839 전략은 정부가 먼저 사업자 허가, 서비스 방식의 결정, 표준화,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새로운 초기 서비스를 열어주면, 서비스 제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어 인프라 투자확대를 유발하고, 인프라의 고도화에 따라 생산기반이 견고해지며, 시장이 점차 확대되어 첨단기기와 부품·콘텐츠·소프트웨어 등 차세대 엔진산업이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가 국가 전체 산업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T839 전략분야〉

2004년도부터 IT839 전략분야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중점기술을 선정하



• IT839 전략 표준화로드맵(2008년)

고, 이에 대한 환경분석을 통한 표준화전략을 수립해 왔다. IT839 전략에 맞춰 선정된 중점기술은 주변 환경의 흐름에 따라 소폭의 변화를 지속해 왔다.

중점기술은 크게 2단계의 과정을 거쳐 선정되는데 우선 사전조사 분석을 통해 국내외 주요 표준화항목을 분석한다. 이 단계에서는 국내외 표준화기구에서 주요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표준화 대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국제·지역·국가 표준화기구 및 포럼, 컨소시엄 등 사실표준화기구에 대한 핵심항목 조사와 미국·유럽·중국·일본 등 주요국의 표준화 전략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한다. 아울러 민간의 정보통신표준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정보통신표준화 대상 항목 수요조사로 실시한다. 중점기술 선정단계인 2단계에서는 전략적 중요도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중점기술(안)을 선정 후 정보통신 표준화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표준화로드맵 수립의 성과와 과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차세대 기술표준 동향에 기반 한 신규 중점기술 발굴을 통해 국가 차원의 기술표준화 정책 전략방향을 제시해 온 표준화로드맵은 정보통신분야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산학연관이 표준화 추진전략을 공유함으로써, 시장 요구표준의 적시개발 및 목표지향적인 국내외 표준화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시장 환경 적합성 제고를 위해 표준화 추진전략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제공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할 및 자원 배분이 가능했다.

그 대표적인 성과를 꼽는다면 와이브로와 지상파 DMB의 국제표준 채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와이브로와 지상파 DMB의 국제표준 채택은 우리나라 정보통신 20년 역사를 통해 얻은 최고의 결실이자 우리도 국제표준의 주도국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값진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는 표준화로드맵 수립을 통해 산학연관이 서로 하나의 표준화 추진전략을 공유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세계는 지금 융·복합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정보통신 기술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정보통신 원천기술의 국제표준을 선점한 나라에게 무궁한 시장과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다시없는 기회를 맞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핑크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분야는 그리 많지 않은 것 또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속적인 표준화로드맵 수립을 통해 발전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산학연관의 노력을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전 국민적 관심과 공유 속에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여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절 표준화활동 기반의 확산과 지원

1. 정보통신표준화 전략포럼 활동 지원

활동 개요

정보통신 기술의 다양화·융합화·고도화의 진전으로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산업체 중심의 사실표준화 활동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실례로 미국, 유럽 등 기술표준 선진국에서는 특정분야 시장 선점을 위해 기업이 중심이 된 포럼·컨소시엄형 표준화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그 역할 또한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TTA에서는 세계 사실표준화 활동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신속한 포럼 표준 도출을 통해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며, 산학연 관련 전문가 간의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2000년부터 핵심 분야의 정보통신 표준화 전략포럼을 선정·지원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TTA에서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보통신 기술 추세를 반영한 핵심기술 분야의 포럼 선정 및 지원을 위해 매년 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투명 공정한 선정을 추진하였으며, 철저한 성과관리 시스템(월별 추진실적/중간보고/연간 활동결과보고 및 최종보고서 등)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포럼표준 및 기고서 제출 등 성과기반의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차년도 포럼 선정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000년에 태동한 정보통신표준화 전략포럼은 IPv6, 인터넷텔레포니(VoIP) 등 인터넷 분야, 차세대방송, MPEG 등 방송통신 분야, 전자상거래 및 정보보호 분야 등 10개의 포럼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2001부터 2002년에는 차세대통합망 네트워크, 광, 무선, 이더넷 등 IT산업 핵심 인프라 분야 등을 중심으로 양적인 팽창이 이루어져 총 28개의 포럼을 지원하였다. 2003년에는 텔레매틱스, 디지털콘텐츠 등 9대 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체계가 개편되었으며, 이후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정부의 IT839 전략 분야 등을 중심으로 2004년에는 31개 포럼, 2005년과 2006년에는 32개 포럼을 선정·지원하였다. 2007년에는 포럼의 활동목적(세계 사실표준화기구 대응·국내 민간표준화 활성화)을 고려하여 30개 포럼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에는 최초로 민간·정책 등 복합적 수요조사를 통해 38개의 포럼을 선정·지원하였다.